

전주시·지역 정치권, 지역 발전 협력

시, 김성주 국회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전주시병 지역위원회와 정책협의회 갖고 현안사업 논의

전주시가 전주종합경기장 부지개발 등 지역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전주시병 지역위원회(위원장 김성주 국회의원)와 머리를 맞췄다.

시는 지난 23일 전주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김성주 국회의원, 이병하 전주시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주시병 지역위원회-전주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주요 현안사업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책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은 시정 운영 방향과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내년도 국가 예산확보 및 도비지

원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전주 종합경기장 부지개발 △옛 전주지방 법원·검찰청 부지 활용방안 △스포츠타운 조성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공영주차장 확보 방안 등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와 함께 시는 이날 민주당 전주시병 지역위원회에 △국립중앙도서관 전주분관 건립 △출판산업 복합 클러스터 조성 △K-Film 제작기반 및 영상 산업 허브 구축 등 주요 사업의 국가 예산확보, 육상경기장 및 실내체육관 건립사업과 전주실내체육관 건립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도비 확보를 위해 힘을 실어줄 것을 건의했다.

시는 향후에도 지역 정치권과 꾸준히 정책협의회 자리를 마련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해법을 함께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주 국회의원은 "지역위원회와 전주시는 시민을 위해 복무하는 공동 운명체로 지역사업과 현안을 당정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모범적 사례를 만들어 가기로 약속했으며, 전주대대 이전, 종합경기장 개발 등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히고, 전주병 15개동 순회 주민간담회 결과 공통적으로 제기된 쓰레기 수거,

대중교통, 주차난, 악취문제를 4대 민원 현안으로 규정하고, 전주시의 종합적 대책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가 찬란한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더 큰 미래를 열게할 종합경기장 부지개발과 전주대대 이전 등의 주요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 정치권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전주 발전을 이끌고 시민들에게 더 큰 행복을 선사할 수 있도록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가 예산 및 도비 확보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아이들과 함께하는 숲 체험' 전주시 가정어린이집 연합회는 지난 23일 송천동 건지산 일원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전주지역 영유아와 학부모, 보육교직원 등 42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아이들과 함께하는 숲 체험' 행사를 가졌다.

전북혁신도시에 어린이 전용 창작실 생긴다

전주시-도서문화재단 씨앗, 어린이 전용 창작실 조성 업무협약

전북혁신도시에 들어서는 복합혁신센터에 어린이들을 위한 전용 창작공간이 동지를 틔운다.

전주시는 지난 23일 도서문화재단 씨앗과 전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물 2층에 어린이작업실인 '모야'를

조성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는 어린이 교육과 놀이시설, 주민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한 복합형 공간으로, 내년 초 개관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에 따라 올 연말까지 어린이작업실 '모야' 공간을 조성하고, 개관 이후에는 어린이작업

실의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시는 어린이작업실 '모야'를 포함한 복합혁신센터가 들어서면 전북혁신도시 주민들의 문화체육시설 확충 등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혁신도시 가족소통 거점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차오, 전주! 전주에서 만나는 이탈리아'

전주세계문화주간, '이탈리아문화주간'으로 3년 만에 개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도시 전주에서 유구한 역사 속에서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이탈리아 문화의 정수를 만끽할 수 있는 행사가 열렸다.

전주시는 지난 23일 전주향교에서 열린 개막 리셉션을 시작으로 오는 29일까지 1주일 동안 예코스티 세병공원과 전주한옥마을 등 전주시 일원에서 '전주에서 만나는 이탈리아'를 주제로 한 전주세계문화주간-이탈리아 문화주간이 펼쳐진다고 밝혔다.

유럽의 역사·문화의 심장부인 이탈리아의 문화의 정수를 만끽할 수 있는 전주이탈리아문화주간은 코로내19의 여파로 3년 만에 개최되는 전주시의 대표적인 공공의교 행사로, 시는 주한이탈리아대사관·주한이탈리아문화원·주한이탈리아상공회의소·주한이탈리아관광청 등과 협력해 이번 행사를 준비해왔다.

'차오, 전주!'라는 타이틀로 열리는 이번 이탈리아문화주간은 첫날 우범기 전주시장과 페레디코 파올라 주한 이탈리아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향교에서 열린 개막 리셉션으로 서막을 열었다. 개막행사의 사회는 이탈리아 출신의 유명 방송인인 알베르토 몬디 씨가 맡았다.

개막 행사에 이어 24일에는 전주세병공원에서 이탈리아테이카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전주와 우호도시인 이탈리아 피렌체의 요리

사가 직접 요리한 '이탈리아 음식 체험' △어린이들을 위한 쿠키아이스팅 체험프로그램 △이탈리아스 타일 한지팔찌 체험 △인생네컷 △커피 및 와인시음회 등을 선보였다.

같은 날인 전주한옥마을 오목대 전통정원에서는 한옥마을비스타 대회도 열렸다. 또, 오후에는 이탈리아 가변 마임퍼포먼스가 진행됐고, 해질녘에는 이탈리아 테너 빈센조 란타니, 팝밴드 프렌즈의 공연도 펼쳐져 한옥마을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셋째 날인 25일에는 전주푸드 효천점 마을부엌에서 이탈리아 쿠킹 클래스가 열렸다. 쿠킹클래스에는 이레지나 셰프와 방송인이자 셰프인 이탈리아 출신의 비아지오가 참여해 어린이와 성인들을 대상으로 파니니와 피자 등을 함께 만들었다.

여기에 이번 이탈리아문화주간에서는 △이탈리아 △이탈리아시 결혼동 이탈리아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이탈리아영화페스티벌도 준비돼 있다. 예매는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끝으로 덕진공원 영화정도서관에서 진행되는 이탈리아문학주간 프로그램에서는 160여 권의 이탈리아 책을 만날 수 있다. 이탈리아 문학주간 프로그램은 전주시립도서관 누리집(lib.jonju.go.kr)에서 사전 신청할 수 있다.

/김재훈 기자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랑' 우리동네 주거공간 개선 추진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랑'은 최근 비위생적 공간에서 거주해온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청소·방역서비스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우리동네 주거공간 개선사업'을 추진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해당 세대는 입원 치료 후 퇴원을 앞둔 기초생활수급자로, 수년 전부터 집에 가져다 놓기 시작한 물건들이 쌓이며 퇴원 이후 거주지 공간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였다.

이에 전주시복지재단은 관할 동 주민센터로부터 긴급하게 요청을 받아 청소·방역서비스 등을 지원, 쾌적한 주거공간으로의 복귀를 도왔다.

이와 관련 전주시복지재단이 추진하는 '우리동네 주거공간 개선사업'은 주거환경이 취약한 가구에 맞춤형 주거개선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으로, △비위생적 주거공간 개선 △안전진화 및 편의시설 개선 △재난, 화재 발생 등의 개보수 사유 발생 시,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지원 여부가 최종 결정되면 가구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김재훈 기자

'제16회 전주평생학습한마당' 성료

시, 선언문 낭독·작품 전시·공연·유공자 표창 수여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공요의 계절 가을을 맞아 전주시민과 함께 즐기는 체험형 학습축제인 '제16회 전주평생학습한마당'이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전주지역 평생학습 관련단체와 일반시민들의 참여 속에 한국전통문화전당 일원에서 펼쳐졌다.

함께 공부하는 전주, 동학(同學) 전주를 주제로 진행된 올해 평생학습한마당에는 평생학습 관련 기관과 단체, 동아리, 공동체 등 90여 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아동·청소년부터 노인 에 이르기까지 전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평생학습 인문체학과 성인문해 학습자 작품 전시, 공연 등 평생학습의 성과와 노하우를 공유하는 100여개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올해 평생학습한마당은 첫날 우범기 전주시장과 김성주 국회의원, 서거석 전라북도교육감, 강대중 국가평생교육원장, 전주지역 평생교육기관 관계자와 학습자, 강사 등 시민 500여 명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소리지존의 타악 퍼포먼스 공연으로 축제의 포문을 열었다.

개막식 1부에서는 전주시 평생학습 중진에 기여해온 △꽃밭정이노인복지관 △덕진아호청소년센터 △한국여성소비자연학 전북지회 등 3개 단체와 △이명희 맥 대표 △이지영 50+커뮤니티 회장 △유관희 한국전통문화전당 팀장 등 개인 3명에 대한 유공자 표창이 수여됐다.

특히 개막행사에서는 초등학생부터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세대별 시민 5명이 '전주가 지속가능한 학습도시로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데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선언문을 낭독하기도 했다.

여기에 개막공연인 '시민과 함께하는 회복 콘서트'에서는 TV 프로그램인 '팬텀싱어'의 출연진들이 △Phantom of the opera(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등 8곡의 뮤지컬과 감성 짙은 가요를 선보이고, 7명의 시민밴드 락페스티벌 공연도 펼쳐져 행사를 풍성하게 만들었다.

이어진 본 행사에서는 △배움부스 17개 △나눔부스 20개 △함께부스 21개 △유료부스 7개 △50+플랫폼 10개 △기타특별부스 7개 등 평생학습을 체

험하고 평생학습기관을 홍보하는 82개의 부스가 운영됐으며 무료체력과 유로체력 모두 인기를 끌며 오라간만에 대면 축제에서 체험을 즐기려는 시민의 발길이 이어졌다.

구체적으로 평생학습을 체험할 수 있는 부스로는 전주주부평생학교 등 문해교육 6개소가 참여한 가운데 성인 문해학습자 작품 전시와 교과서를 비치하고, 책상과 의자, 교복, 장난감 등을 레트로 감성을 불러내는 물품들로 추억의 교실을 꾸며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또한 이번 한마당 행사에서는 인생2막을 준비하고 있는 50+ 커뮤니티가 다채로운 공연과 기부활동으로 채운 '50+ 플랫폼 한마당'도 함께 진행돼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이외에도 행사에서는 평생학습 동아리 한마당에서는 움직이는 홍보·체험관이 팝업부스 형태로 꾸며졌으며, 환경·인권·노인 취업 관련 동아리 체험 및 이동상담소, 18개 동아리팀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뽐낸 동아리 발표회도 펼쳐졌다.

/김재훈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